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147.00원에 마감
------	------------------------------

12일 환율은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147.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30원 내린 1,144.80원에 하락 출발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이달 10일까지 국내 수출이 14.1% 증가하는 등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는 점 등은 위험심리 회복에 일조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결제 등 달러 매수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며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147.00원에 마감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0.9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44.80	1147.70	1144.70	1147.00	1146.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3.27	1043.27	1034.37	1039.6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64.39	1364.96	1354.09	1360.3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7	0.21	0.39	0.84
	결제환율(수입)	0.36	1.25	1.94	3.4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수출업체 네고와 코로나19 확산으로...1,140원 후반 중심 박스권 등락 전망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47.00원) 대비 0.65원 오른 1,148.00원에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1,140원대 중후반에서 장을 시작하며 수급에 따른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서울 환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날도 확진자 수 발표가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전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관건인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심리는 달러 매수세를 자극하며 1,150원 상향 돌파 시도를 촉발할 수 있다.

다만, 1,15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달러-원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수출업체 이월네고와 중공업체 수주 등 고점 매도물량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주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준비제도 의장연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된 만큼 대체로 관망심리도 커질 전망이다. 달러 인덱스는 92.2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이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1.36%에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43.50 ~ 115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93.6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0원 ↑
	■ 美 다우지수 : 34996.18, +126.02p(+0.3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0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29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